

## 2023 년 4 월 2 일 “예수님의 비유(35) 새 술은 새 부대에-2”(눅 5:37-38)

지난 주일에 이어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더 살피겠습니다.

### [1] ... 주의로부터의 해방

뭔 가에 편향적으로 쏠리면 삶의 확장, 성화, 통합의 과정을 잘 갈 수 없습니다. 각종 이념, 또는 자기 고집에 빠지든지, 삶의 강령과 금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타인을 판단/비판하게 됩니다. 도덕주의와 완벽주의가 그러합니다.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형식과 교리적 표명에 붙들리면 종교의 형식이나 모양에 편향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참 사랑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따라서 종교가 추구하는 내면성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그러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특성은 숭고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타인을 잘못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 [2] 신실한 청년 데바다스 이야기 - 복음을 율법주의로 살았던 예

데이빗 시맨즈 ‘치유하시는 은혜’(1 장)

그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힌두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 ‘저는 더 해야만 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다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는 완벽주의 안에서 행위라는 덫에 빠졌습니다. 충분히 다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완벽주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생명을 헌 부대에 넣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과 기도와 예배 등 종교행위를 행동 규정(해야 돼)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쁨, 흥미, 호기심, 재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행위는 성취를 이룰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아빠와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늘 아빠는 나를 늘 기뻐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나의 잘못도 기쁨과 격려로 고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도, 성취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앞에서 아직 뭔가 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 [3] 새 부대에 생명을 맡깁시다!

도래한 성령님의 새시대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담은 새 부대는 우리 존재를 기뻐하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 보다, 나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좋아하고, 작은 일에서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은사를, 사역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것이라도 옛 부대에 담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데바다스의 올가미에 걸립니다. '더 해야 해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새부대에 맡긴 새 삶에서는 충분히 했다는 양적 느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 부대 안에서는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또는 한 사소한 관계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면 삶이 충만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새 부대 안에서는 작은 하나의 가치가 온 삶을 충만하게 밝혀준다는 말씀입니다.

더 해내고 더 잘 함으로써 입증할 필요가 없는 새 삶의 경이를 회복하고 자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나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을 느낍니까? 이것이 나의 삶과 활동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 외에 내게 끼치는 영향을 말씀해 보세요.
2. 나의 삶에 기쁨과 복된 소통이 채워지는 새 생명의 경이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면적, 신체적, 활동적인 측면을 살피며 찾아보세요.